

엇박자 내는 트렌드와 소비자 인식

오해 · 편견의 터널 벗어나야 변화무쌍한 시대조류 합류 가능

제 행무상(諸行無常)이라 했지만 가끔은 자신에게 우문을 던지곤 한다. 과연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을까”라고 말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흔히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일컬어 정보화 시대라 말한다. 물론 그 의미 속에 스피드(Speed)의 빠름을 함축하고 있을 게다. 그러면서 어느덧 지금엔 유비쿼터스(Ubiquitous)시대를 맞고 있다. 하지만 이 변화무쌍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유독 인식의 변화만큼은 시대를 좇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아니 오히려 뒤쳐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우연히 받아든 한 협회의 간행물 책자에서 농약에 대한 그동안의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홍보의 글을 읽게 되었다. 사실 도시에서 성장하고 생활하는 배경을 지니고 있는 자신에게 농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느낌은

안전성 보다는 위험성에 더욱 무게중심을 둘 수밖에 없었다. 아니 그게 사실이다. 농약에 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을 뿐더러 통념상 식생활 속에서 농약 잔류, 유기농, 친환경 농작물 등등의 단어가 도시 생활인들에게 각인되어 오히려 친숙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의 통념과는 달리 농약이 농작물의 보호와 생장에 사용되는 소중한 약제임을 알게 된 것은 행운이었다. 다시 말해 농약은 농작물을 해하는 균·곤충·응애·선충·바이러스, 기타 동·식물의 방제에 사용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와 같은 약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농약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는 달리, 농약의 품질향상 및 그의 적정한 사용을 규정하고 농업생산의 안정과 생활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많은 생각을 해보았다. 또 현재 시판되고 있는 농약은 위험성

이 높은 것은 거의 없지만 크든 작든 자체의 독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전문가들을 통해 합리적인 농약사용을 권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과거 우리의 인식이 이를 좇지 못함을 반증하고 있다.

아울러 농약이 벌레·균·풀을 죽이므로 생물인 인간에게도 무조건 악영향이 있다는 견해도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닌 듯싶다. 예를 들면 균이나 풀의 세포처럼 세포벽이 있는 생물의 세포벽 성분의 생합성 구조를 저해하는 물질로 생물을 죽게 하는 농약은 세포벽이 없는 세포로 구성된 인간 등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병해충과 인축, 작물의 생리작용에 대한 질적·양적인 차이를 이용하여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농약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상적 성분의 농약이 출현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 인축에 독성이 강한 성분도 많으므로 독성이 강한 것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법에 의해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함으로써 유통에 대한 각종 규제가 실시되고 있다는 것도 새로이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포함한 대다수 사람들의 인식속에서 농약의 유해성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식품 중의 잔류농약이 아닌가 싶다. 결국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 그로인한 만성중독의 우려를 지적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치의 설정과 각 품목마다 정해져 있는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우려를 말끔히 없앨 수 있다. 급성중독 예방책에 관해서도 라벨(포장지)에 올바른 사용문구의 기재가 의무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독성이 강한 농약도 실질적으

로 규제를 하고 있다. 또한 누에, 꿀벌, 해충의 천적 등 유용곤충에 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지도는 물론 곤충종간에 대한 선택독성을 가진 살충성분 등이 개발되어 실용화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었다.



심 형 보
자유기고가

더딘 '인식의 변화' 아쉬워

우리의 편견 중 또 다른 하나는 작물에 사용된 농약은 비나 바람에 의한 유실·소실, 일광이나 식물체효소에 의한 분해 등으로 거의 소멸하지만 그 일부는 표면에 남아 있거나 식물에 흡수되어 수확물에 다량 잔류되어 있거나 없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양은 작물의 종류, 농약의 성분, 사용 후의 환경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ppm 이하의 초미량이라는 것이다. 이 미량의 잔류량으로 급성중독의 위험은 없다. 그러나 농산물은 계속적으로 섭취되는 것이므로 잔류허용기준이란 안전장치가 설정돼 있다. 이 설정에는 동물실험에 의한 만성독성시험을 이용한 ADI(일생 동안 매일 섭취해도 건강상 영향이 없는 1일 섭취허용량), 국민의 섭취식품통계로 산출된 평균적인 식품 하루 섭취량, 보통 사용법에 의한 농약잔류실태조사 값 등을 참고로 하고, 농산물을 수확한 상태 즉, 물로 씻지 않고 먹는다는 것을 상정하여 과학적 수치를 기초로 행정적 판단으로 정하고 있다. 농산물중 잔류량은 각종 요인에 의해

변하므로 이것을 실험적으로 조사하고 잔류기준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안전사용기준이 농약관리법에 근거하여 정해져 있고 농약 품목마다 사용자가 지켜야 할 기준이 라벨에 기재되어 있다. 이들 각종 기준만 지킨다면 농약도 다른 농자제는 물론 문명의 이기중 하나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농약을 생명 유지나 연장에 가장 치명적인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농약의 안전성은 물론 농약이 기여하는 바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오히려 우리 인체에 침투하여 각종 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항생제의 무분별한 오·남용으로 인해 내성을 키워가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는 그 어떤 항생제로도 치유할 수 없는 변종 MRSA(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메티실린 내성황색포도구균)보다 강한 슈퍼박테리아인 VRSA (Vancomyc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반코마이신내성 장구균)의 출현으로 인류가 위협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작물 역시 내성을 갖고 농작물 스스로 독성을 뱉어낸다면 그것이 농약 보다 더 인체에 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불문가지이다. 천연물 내에 함유되어 있는 독성물질은 독성의 정도나 발현 메커니즘이 미확인 되었으나 오히려 농산물중의 잔류농약은 독성의 정도나 발현 메커니즘이 밝혀진 물질로서 위해성이 인정되면 규제하는 등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약의 적절한 사용법과 사용량을 지켜 각종 병해충을 방제한다면 동식물 자체

의 내성에서 뱉어져 나오는 독성을 제거하여 보다 안전한 농작물을 섭취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잘못 인식하여 저마다 농약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갖고 있었다면 서두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이제는 그 잘못된 편견과 오해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시대가 변해가는 속도만큼이나 우리 인식의 변화 역시 낙오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우연히 받아든 한권의 홍보물은 자신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다. 곳곳을 읽고 난 후 마지막 책장을 덮으면서 그동안 우리는 왜 농약이 인체에 해롭다고만 인식하고 있었는지 부끄러웠다. 그래서 대형 백화점이나 할인마트의 유기농 또는 친환경농산물 코너만을 서성거렸던 과거 수차례의 경험이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농약이 농업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류에 기여한 바가 작지 않으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자체의 안전성과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어 온 농업 발전의 그림자속에 가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러한 편견과 오해로 가득찬 긴 터널 속을 벗어나지 못하는 더딘 인식의 변화가 그저 답답할 뿐이다. 

